



지역의 이름을 딴 별도의 식물명을 갖고 있는 '홍도 원추리' /뉴스시스

섬 주민이 직접 '섬 이야기' 들려준다

전남도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전라남도는 섬 주민이 직접 그 섬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이를 관광 콘텐츠화해 여행객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는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섬을 가장 잘 아는 현지 주민을 '섬 해설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섬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섬을 소개할 코스와 이야기를 만들어 따뜻한 정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광 해설사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4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지에서 배워온 교육이 아닌, 섬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방식이다. 섬 전문가, 작가, 관광 해설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직접 섬을 찾아가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과 교육을 진행한다. 주민들의 생각을 기초로 해 섬 여행 코스와 테마를 디자인하고 이에 따른 해설 시나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으로 만드는 '섬 콘텐츠'를 갖게 된다. /전남=봉채영 기자

인천 남동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사업지구로 19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남동구는 지난 2014년 2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이 전면 해제된 이후 그 동안 허가구역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체 지역(9.5km²)이 대상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도시디자인, 지역 대학생과 함께 만들어요”

익산시 '익산 디자인 위크' 운영

익산시 공공디자인에 지역의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의 도시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익산 디자인 위크(Iksan Design Week)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운영을 시작했다

고 19일 밝혔다.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도 많은 디자인관련분야 학생들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의를 시작으로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경관·공공디자인·도시재생사업의 디자인분야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북 익산=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20일(화)
음력 : 7월 20일

수도권 날씨
33~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2 | 해질 / 19:19

연천 18/32, 동두천 18/32, 가평 18/32, 파주 19/32, 서울 22/33, 양평 20/32, 인천 23/32, 수원 21/33, 용인 21/33, 평택 20/33, 백령도 21/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천 연수구 지역화폐 '돌풍' 49일 만에 결제액 1000억 돌파

'연수e음' 전국 최단기록 갈아치워 매출증가·소비 외부유입효과 '특특' 30만원 이하 사용자 49% 가장 많아

인천 연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지역화폐 '연수e음'이 발행 49일만에 누적 결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국 최단기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지난 6월 29일 첫 발행 이후 주사용업종도 초기 학원비에서 음식·식품업, 병원·약국, 유통업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의 외부 유입효과도 특특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랫폼 시행사 '코나아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연수e음' 누적결제액이 1016억 원을 넘어서 연수구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1000억 원을 돌파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는 지난 5월 두 달 먼저 발행을 시작한 서구 '서로이음'의 1000억 돌파 기간인 71일보다 22

일이나 앞당긴 기록으로 가입자도 1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령별 사용비율은 ▲31~40세가(28.13%) 가장 많았고 ▲41~50세 (26.99%) ▲21~30세 (18.14%) ▲51~60세(15.26%) ▲14~20세(5.17%)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 사용금액은 주소비층인 ▲41~50세(37.33%)가 가장 많았고 ▲31~40세(31.92%) ▲51~60세(14.26%) ▲21~30세(10.7%)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구간별 거래현황도 30만원 이하 사용자가 전체의 49.7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구간 사용자가 전체의 83.51%를, 100만원~200만원 사용자는 10.41%를 차지했다. 사용 업종별로도 지난달 누적 결제액 700억 원 중 ▲음식점/식품 185억 원 ▲학원 137억 원, ▲병원/약국 93억 원, ▲유통업 72억 원, ▲취미/레저 43억 원, ▲주방/가구/가전 3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우려했던 원도심과 신도심간

사용 비율도 연수구 전체 35만 명 중 15만 명이 거주하는 송도동 사용률이 51%를 차지해 비교적 원·신도심의 사용률도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거래액은 신도심의 교육비 지출이 높은 ▲송도 서부지역이 70억 원(12%)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 주변이 58억 원(10%) ▲트리플스트리트 27억 원(5%) 순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권역별 거래액도 ▲맛고을 상권이 43억 원(8%)으로 가장 많았고 ▲나사렛병원 일대 36억 원(6%), ▲스퀘어원 22억 원(4%), ▲옥련전통시장도 21억 원(4%)을 기록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의 데이터와 정보 등을 활용해 연수e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복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metroseoul.co.kr



방학 동안 많이 자랐어요 19일 오전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키를 재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9억 지원

하반기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 중기 3억·소상공인 2000만원

전주시가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생산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하반기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는 총

59억원 규모로, 시는 제조업 42억원과 소상공인 2억원, 청년기업 15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융자 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전주=봉채영 기자

전남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시동'

14억 들여 선박안전장비 보급

전라남도는 10t 미만 소형어선의 항해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조업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전라남도는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357대 등 4종 3503대의 선박안전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남=봉채영 기자